

연재

+

동물이름 불러주기



최종욱

광주시청 광주우치동물원

야생동물 진료수의사

lovnat@hanmail.net

동물이름 불러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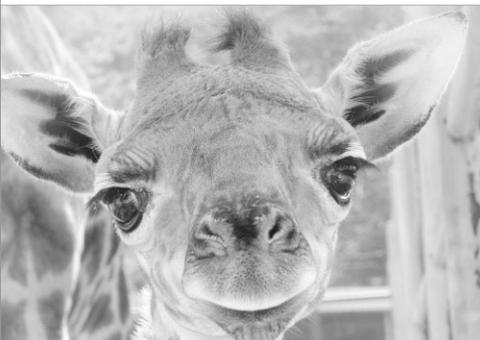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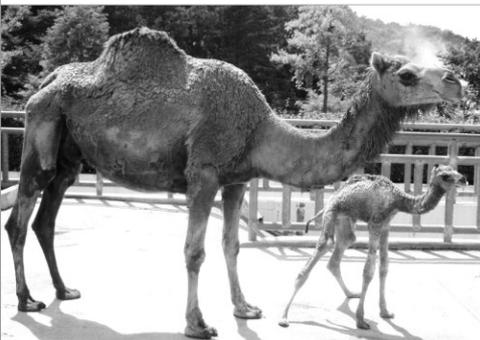
9년 전 내가 처음 동물원에 왔을 땐 우리 동물원 동물들은 거의 이름이 없었다. 동물들 하고 친해 지려면 이름이라도 불러 동물들에게 아는 체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불러야 할지 참 망서려 졌다. 그냥 “야! 기린아 이리와!” 하기엔 왠지 친근감이 많이 떨어지는 듯 했다. 40줄이 넘는 지금에도 몇몇 아는 어르신들조차 나를 이름대신 “아야! 어이! 야!” 하고 부르시는 이들이 있다. 자기들 판에는 그게 친근감 혹은 가까움 때문 권위의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듣고 있는 나로서는 나이를 떠나 그런 식으로 불림을 받는 건 항상 기분이 나빴다.



연재

+

초보 애니멀커뮤니케이터들의 대화



그러니 내가 나쁜 걸 동물들에게 그렇게 할 순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좋아하는 순서라고나 할까 나름대로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지어 부르다 보니 이제 거의 반 이상은 제대로 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 많은 새와 파충류도 이름을 다 불러주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다.

생텍지베리의 ‘어린왕자’ 테이머(길들이기) 편에서 보면, 사막여우가 나오는데 이 사막여우는 정말로 순백의 아름다운 여우이다. 물은 거의 안 먹고 말 그대로 이슬만 먹고 산다. 귀가 몸에 비해 무척 크고 털이 곱고 눈이 크고 체구가 아담해서 전형적인 귀여운 외모를 지니고 있다. 동물원에서도 어린왕자의 영향 때문인지 굉장히 인기가 높지만 무척 구하기 어려운 동물이기도 하다. 역으로 이 인기 때문에 야생에선 오히려 밀렵 등 수난을 당하기도 한다.

이 여우는 될 수 있으면 먹이 먹는 걸 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쥐 같은 걸 피 문히며 먹는 걸 보면 좋은 이미지가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거기서 여우는 왕자에게 “내가 나를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찾아주고 내 이름을 늘 불러준다면 난 너에게 차츰 길들여질 테고, 길들여지면 너와 난 서로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오면 난 동굴 안으로 달아나겠지만 네가 오는 시간이 되면 난 몇 시간 전부터 밖으로 나와서 내내 초조하게 너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해준다.

우린 동물들을 길들인다는 걸 당연시하면서 소유정도의 개념만을 갖지만, 이 고전만큼 인간과 동물간 때론 인간과 인간간의 길들임의 참 의미를 아름답게 전달해주는 건 아직 못 본 것 같다. 이름을 매일 불러주는 것 역시 바로 이 길들임 작업에 속한다.

대략 내가 지은 동물들 이름을 나열해 보면, 기린은

원래 이름이 있었다.

‘밀레린과 아린’ 이 멋진 이름은 에버랜드에서 공모를 통해 붙여진 이름이라 역시 좀 차원이 다르게 고품격이다. 밀레니엄에 태어났다는 것과 아름다운 기린이라는 의미이다. 이번에 태어난 기린 새끼는 기린답게 눈에 예뻐 ‘초롱이’ 라고 지었다.

하마는 그냥 간단히 ‘히포’ 라고 부른다. 하마의 영명 첫 글자 이기도하고, 신발상표이기도하다. 팀버늑대는 ‘팀’, 하이에나는 ‘하이’ 이런 식이다. 사실 이렇게 성의 없는 듯 부르는 건 좀 미안하다. 쌍봉낙타는 ‘봉봉이’. 봉이 2개라서 그렇다. 침팬지의 이름은 ‘판치’ 이다. 주먹 쥐고 걷고 가끔 철문도 쿵쿵거리 붙인 이름이다. 돌이와 순이는 별 특징 없는 암수동물들에게 붙인 이름이다. 단봉낙타 한쌍은 ‘낙순이, 낙돌이’ 이다. 그들 사이에 난 새끼이름은 쌍봉이와 대조로 ‘한봉이’ 라고 지었다. 캥거루 수컷은 붉, 암컷은 블루, 새끼는 조이다. 원래 호주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걸 알고 참고했다. 코끼리들은 동남아에선 집안의 한 재산이니 당연히 이름이 태어날 때부터 호적에 오른다. ‘쏘이, 봉 팀. 짠다’ 처럼 원래 그들이 태어난 라오스와 태국에서 붙여 온 이름이다. 이번에 쏘이와 봉이가 새끼를 낳아 우리 동물원에서 탄생한 걸 기념해 수컷은 ‘우치’ 암컷은 ‘우리’ 라고 지었다. 불곰 두 마리는 어렸을 적에 하도 겁을 많이 내기



연재

+
동물이름 불러주기

에 암컷을 어리, 수컷을 버리라고 총동적으로 불러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 합쳐서 ‘어리버리’ 나누어 부르니 어감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관람객들도 이 이름을 무척 좋아한다. 사자새끼 3마리는 세가지색 ‘블루, 레드, 화이트’이다. 블루는 사실 블루의 다리가 기형으로 태어나 보정해 주는 과정에서 뿌린 소독약 색깔에서 기인했다. 나머지는 영화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였다. 세 마리 새끼 호랑이의 이름은 합쳐서 ‘아이, 러브, 기아’이다. 우리고장 야구단인 ‘기아’가 작년에 넘 잘해 야구 응원하다 덜컥 지은 이름이다. 덕분에 그 세 마리는 코리안시리즈 개막전에 데리고 나가는 영광을 누렸다.

앵무새는 깃 색깔 따라 하얗이, 초롱이라 부른다. 영리한 앵무새에게 꼭 이름을 지어주고 자주 불러주어야 말도하고 따른다. 앞으로 아직은 별로 아직 관심이 못 미치는 조류, 파충류들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줄 것이다. 지금은 비록 사이가 멀지만 그렇게 하면 그들도 나에게 차츰 길들려져서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지리라 믿는다.

여러분들도 동물원에 가실 때 마음에 드는 동물들 무엇이든 나름 이름 하나씩 지어 불러준다면, 동물원에도 당신을 늘 기다리는 누군가가 생길 것이고 당신 또한 그를 더 자주 찾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원도 야생동물도 인간도 결국 차츰 사라지고 말 것이다. fin~

